

## 「일본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

홍 중 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명지대학교 박물관장 홍중필입니다.

「아시아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논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어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모리타(森田恒之)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일본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지만 간략하게 4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박물관이 197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둔화되고 자연사 계통의 대형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60~70년대에 걸쳐 건립된 인문과학 자연사 종합박물관의 시설 노후·컬렉션의 증대·수장공간의 부족·전시개선을 위한 문제 때문에 역사·민족계·자연사계로 나누어 박물관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관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예: 시간절약·상호비교를 통한 이해 등)

둘째, 근년의 일본 경제 불황은 기업들이 소유한 박물관에까지 영향을 주어 유수의 기업박물관들이 문을 닫는가 하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간부직원들의 해고 등으로 박물관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경제불황 때문일까요?

셋째, 일본에서의 박물관의 증가는 학예원의 증가를 가져왔고 학예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자리가 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공립과 사립박물관 모두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예원 양성을 위하여 법정 시간을 늘였으나 일부 교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요?

넷째, 끝으로 일본의 박물관 설치 규정은 국·공·사립 모두 일치하여 자격있는 학예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에 대한 지원책과 일본의 바람직한 미래의 박물관상(像)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